http://dx.doi.org/10.5392/JKCA.2013.13.11.935

울산 만회정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복원 모델

Restoration Model for Culture Contents of the Man-Heo-Jeong in Ulsan

이창업
울산과학대학교 공간디자인학부

Chang-Eob Lee(100watt@naver.com)

요약

울산 태화강변 십리대숲의 가운데에 위치하였던 '만회정'은 울산 출신의 무관인 박취문이 조성한 정자였다. 울산읍지와 고문헌 및 고지도를 참고해 보면, 조선후기 당시 만회정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만회정의 규모는 정면 3~4칸, 측면 1.5칸 정도로 추정되며, 전면부에 누마루(테라스)를 둔 것을 알 수 있다.공간의 구성은 양쪽에 방 한 칸씩을 두고, 가운데에 마루 한 칸을 둔 중당협실형인데, 이와 같은 형식은 정자의 뒤에서 진입하게 하여 전면의 경관을 극적으로 보게 한 구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만회정은 태화강과 십리대숲을 충분히 이해하여 구성된 정자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요소로 활용하기에 손색없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만회정 | 울산 | 고문헌 | 고지도 |

Abstract

Man-heo-Jeong, which wa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Sibri bamboo grove near by Tae-hwa river in Ulsan, was a *Jeong-ja*(a kind of pavilion) by *Park Chui-moon*, both a military officer and a nationwide town chief.

Now we can presume the appearance of *Man-heo-Jeong*, referring to the old map describing old Ulsan districts and to old literatures of *Park Chui-moon's* family describing downtown of Ulsan of that times.

It is estimated that the size of Manheo-Jung was constructed three-bay in front view, one point half-bay in side view and terrace in the fore front.

Its space composition was designed likewise one-bay was both sides and in the middle there was one-bay *Maru* called *joong-dang-hyeob-sil* type. Such a structure made people to enter from the back entrance of gazebo and look the front view dramatically.

■ keyword : | *Man-Hoi-Jeong* | Ulsan | Old Map | Old Literatures |

I. 서 론

울산의 중심을 흐르는 태화강의 곳곳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울산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강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현재 태화강변의 십리대숲은 울산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생태 환경적으로도 여타 도시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태화강의 정비가 자연경관요소에 집중되다

접수일자 : 2013년 10월 02일
수정일자 : 2013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0월 29일
교신저자 : 이창업, e-mail : 100watt@naver.com

보니 역사·문화적인 실체가 드물어 문화콘텐츠의 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태화강변의 십리대숲 주변에 역사·문화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영남의 3대 누각이라고 거론 되었던 태화루가 있었는데, 현재 중창되고 있다. 그러나 태화루는 관청에 딸려 있었고, 십리대숲과는 2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울산고을 전체를 관망하는 대형 누각으로, 현재도 그렇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십리대숲을 느끼고 이해하는 등의 소소한 문화콘텐츠의 개발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십리대숲의 훌륭한 경관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소규모 누정의 존재를 밝히고,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울산의 몇몇 읍지에는 십리대숲 영역에 '만회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십리대숲에 있었던 만회정의 역사를 찾아내고 소실되기 전의 모습을 유추, 복원모델을 제시하여 문화콘텐츠화의 기초자료 삼고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만회정의 복원 모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만회정이 명시된 고문헌과 고지도를 분석하여 개략적 모습을 찾고, 누정이 지역색을 갖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구체적인 모습은 만회정과 비슷한 입지를 가진 태화강변의 여타 정자를 조사하여 자료로 삼았다.

II. 박취문의 생애와 만회정 조성의 의미

박취문은 울산박씨(홍려박씨)의 1대조인 고려말 숙종 때 사봉(賜封)한 장무공(莊武公) 박윤웅(朴允雄)의 후예이다. 호(號)는 만회당(晩悔堂)으로 광해군 9년(1617)에 자헌대부지중추부사인 아버지 반오헌(伴鰲軒) 박계숙(朴繼叔)과 정부인(貞夫人) 경주김씨 사이에 장남으로 용당리(龍塘里) 본제(本第)에서 태어났다. 28세 때인 인조 22년(갑신, 1644) 무과(武科)에 급제한 그는 조부인 박홍춘(朴弘春)과 아버지 박계숙의 대를 이은 무신(武臣) 가문 출신답게 무과에 급제하자마자 곧장 병사(兵使)를 수행하는 군관으로 선발되었다. 그 후 박취문은 경상좌도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의 우후(虞侯)를 거쳐 진주(晋州)·경주(慶州) 등 다섯 고을의 영장(領將)을 역임하다가 노령(老齡)으로 퇴임하고 만회정에서 쉬다가 숙종 16년(1690) 생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박취문은 무인 집안 출신으로, 울산읍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무인기질의 도시 울산과도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노년에는 여타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삶을 관조하였는데 그 실체가 바로 만회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경치를 찾아내고 진취적으로 정자를 조성한 것은 문인들과 다른 무인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회정의 복원은 이러한 사항을 콘텐츠화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박취문은 기록상 십리대숲의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건축행위를 한 유일한 사람이다.[1] 이에 십리대숲은 자연경관에서 역사, 문화경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만회정의 복원은 십리대숲의 뛰어난 경관을 복원하는 요체에 해당하며, 십리대숲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핵심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I. 만회정 연혁 고찰

1. 고문헌 고찰

1.1 초창관련 연혁

만회정의 초창(初創)에 대하여는 박취문와 관련된 기문(記文)이나 조성 관련 연혁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영조 25년(1749)에 엮은 울산 최초의 읍지인 『학성지(鶴城誌)』의 형승(形勝)조 내오산(內鰲山)의 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내오산(內鰲山)

태화진(太和津)의 서쪽 수리(數里) 쯤에 있다. 작은 언덕이 강에 닿아 있고, 경치가 그윽하며 묘하다. 만회정(晩悔亭)이 있는데, 부사(府使) 박취문(朴就文)이 지

1) 본 논문의 3장 3번째 고문헌 기사가 십리대숲을 경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3장의 6번째 이정화의 시에는 만회정이 십리대숲을 다 차지하였다고 하여 십리대숲의 중심건물임을 강조하였다.

은 것이다. 정자의 앞에는 가늘고 긴 대숲 몇 무(畝)가 있고, 그 아래에는 낚시터가 있으며 관어대(觀魚臺)라는 3글자를 새겨 놓았다.

한편, 1902년에 편찬된 『울산읍지(蔚山邑誌)』의 승지(勝地)조에는 만회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상으로 언급하였고, 그 위치가 내오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용은 『학성지(鶴城誌)』와 동일하다. 따라서 『학성지(鶴城誌)』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회정은 내오산(內鰲山)에 위치하여 있는데, 울산고을 출신인 부사(府使) 박취문(朴就文)이 지었다. 작은 언덕이 강에 닿았고, 경치는 그윽하고 묘하다. 가늘고 긴 대숲 몇 무(畝)가 있고, 그 아래에는 낚시터가 있으며 관어대(觀魚臺)라는 3글자를 새겨 놓았다. 지금은 폐하여 전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늦어도 『학성지(鶴城誌)』를 엮을 당시인 1749년에는 만회정의 유존(有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박취문(朴就文)은 1617년에 태어나고 1690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만회정은 박취문 생존 당시인 1600년대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가 잦은 외직을 역임하였고, 호(號)가 만회당(晩悔堂)임을 보면, 관직에서 퇴임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만회정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생애 중 마지막 관직은 부호군(副護軍)이며, 숙종 7년(1681)의 일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682년에 퇴임한 후 그는 울산으로 낙향하였다. 따라서 만회정은 그가 낙향한 1682년부터 그가 사망한 1690년 사이인 9년 이내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취문(朴就文)과 그의 할아버지까지 3세(世) 행적을 담은 『학수당삼세실기(鶴睡堂三世實記)』에서도 만회정 초창(初創)관련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책의 내용 중 [박취문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전략)...부방(赴防)의 임무가 끝난 1646년 4월 4일에 집으로 돌아와 그해 6월 24일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여묘(廬墓) 3년을 하루같이 하니, 보는 사람은 모두 충효상전(忠孝相傳) 변함이 없구나 하였다. 늙어 기력이 쇠하여 할아버지인 학수당(鶴睡堂)의 사채지(賜采地)인 말응(末應) 난곡(蘭谷)에 집을 짓고, 십리대숲의 오산에 정자(亭子)를 지어 편액을 만회(晩悔)라하니 자호(自號)이다. 사죽시화(絲竹蒔花)하고 여러 친구와 사람들을 청하여 접대와 아울러 풍류와 책을 벗 삼아 산수지락(山水之樂)으로 즐겼다...(후략)

위의 내용은 만회정의 초창시기를 가늠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만회정의 조성 이유와 건축적 성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첫째 만회정은 퇴임하고 노년에 남은 생을 관조하기 위하여 조성한 별서(別墅)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읍지류(邑誌類)'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내용을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박취문 말년(末年)에 만회정이 조성된 것과 부합하며, 셋째 만회정은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공성(公共性)을 가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2 만회정 유존기간 및 훼손 관련 연혁

앞서 살펴본 두 읍지(邑誌)에서 만회정이 유존(有存) 또는 멸실 된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학성지(鶴城誌)』를 엮은 1749년에는 만회정이 내오산(內鰲山)에 위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만회정이 건립되고 50년간은 유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1902년에 편찬된 『울산읍지(蔚山邑誌)』에는 만회정이 소실(消失)되고 전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1600년대 말 만회정이 건립된 후 300여년이 지난 뒤에는 만회정이 기록으로만 전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학성지(鶴城誌)』 다음으로 편찬된 읍지들에서 만회정 관련 기록을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성지(鶴城誌)』 이후의 읍지는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로 1786년에 관찬으로 만들어 졌다. 이 읍지의 형승(形勝) 조에는 만회정이 위치하였던 내오산(內鰲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오산(內鰲山)은 부(府, 蔚山府)의 서쪽 5리(里)인 태화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있다. (그곳에는) 부사(府使)

박취문(朴就文)이 예전에 건립한 만회정(晩悔亭)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낚시터가 있고, 앞에는 대나무가 무성한 작은 섬이 있다.

여기서는 만회정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볼 수 없고, 오히려 『학성지(鶴城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섬[竹嶼]이 만회정 앞에 있음을 묘사한 것을 볼 때,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가 편찬된 1786년까지도 만회정(晩悔亭)은 유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 다음으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1832년)』의 『울산부읍지(蔚山府邑誌)』가 있다. 이 읍지의 형승(形勝) 조(條)에는 내오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오산(內鰲山)은 부(府, 울산부) 서쪽 5리(里) 되는 태화강 상류에 있다. 위쪽으로는 대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이 있고 아래로 낚시터가 있다.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전하지 않는다.

이 내용 상에는 만회정이 없어졌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따라서 만회정은 적어도 1832년 전에 소실(消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의 내용과는 달리 대섬[竹嶼]이 만회정의 앞이 아니라 위쪽에 있었다고 한 것을 볼 때, 강의 흐름에 따라 무시로 변하는 모래톱의 성격을 가진 섬이라는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만회정의 중수가 있었을 지도 모르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울산의 문인(文人)이었던 오산재(五山齋) 이정화(李鼎和, 1811~1860)의 문집인 『오산문집(五汕文集)』에는 다음과 같은 시(詩)가 있다.

오산 박군(계환)의 그 선대 정자 중수 대하여 시를 읊어 화답을 구하였으므로 희롱하여 일률을 주노라

푸른색이 우거져 아름다운 형상은 우리 동방을 차지하였는데, 한 점의 오산(鰲山)이 화영중(畵影中)에 솟았구나. 달밤 모래에 연하여 바다를 깐 듯 희고, 아침 햇빛은 바다를 통하여 돛에 올라 붉었도다. 백년승지(百年地勝)에 넉넉히 노는 즐거움은 하루아침에 집을 구성하는 공(功)이 새로워졌네. 대(臺) 아래의 물고기를 보는 것은 후일의 약속으로 하였으니, 오장(吾莊)과 이해(爾惠) 두 분의 한가한 노인이로세.

위의 시는 이정화(李鼎和)가 박취문의 후손인 박계환(朴啓煥)에게 만회정(晩悔亭)으로 추정되는 정자의 중수와 관련하여 화답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울산부읍지(蔚山府邑誌)』가 편찬된 1832년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추정컨대, 이정화의 나이가 30~40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1841~1860년 사이에 위의 시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 시의 제목에 언급된'중수(重修)'라는 단어를 '중수하고 나서'로 해석할 경우 만회정은 1800년대 중반에 중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871년에 편찬된 『울산부읍지』에는 여전히 만회정이 소실되고 없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에서의 '중수(重修)'는 '중수하려는 뜻에 대하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박계환이 만회정을 중수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를 읊자 이에 대하여 이정화가 화답하여 시를 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의 내용 중에 '하루아침에 집을 구성하는 공이 새로워졌네(一日棟新肯構功)'라고 한 것을 보면, 만회정이 실제 중수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1841~1860년대 사이에 만회정이 중수되었다고 가정하면, 중수 이후 30~10여년 만 존속하다가 『울산부읍지(蔚山府邑誌, 1871)』가 편찬된 1871년 이전에 다시 소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만회정의 다양한 사료(史料) 확보로 그 연혁이 명확해 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만회정은 늦어도 1871년 이전에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고지도 고찰

울산을 묘사한 고지도의 대부분은 조선중기 이후의 것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회정이 1682~1690년 사이에 조성되었음을 감안하면, 조선중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 만회정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

고 당시 사람들이 만회정에 대하여 공공(公共)의 성격을 띤 정자로 인식하였을 경우 공공성을 나타내는 지도에 표현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울산지역을 중점적으로 묘사한 지도는 12장 정도인데, 그 중 영남지도 2장은 방안형식을 빌어 제작한 것으로 중요 산천(山川), 시설 및 길을 보다 자세하게 표현한 군사지도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 대표성을 띠는 지도 몇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학성지 수록 울산지도

1749년에 제작된 『학성지(鶴城誌)』 수록 울산지도(蔚山地圖)에는 만회정(晩悔亭)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곧 당시에 만회정이 유존(有存)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만회정 유존 사실은 『학성지(鶴城誌)』의 본문 내용과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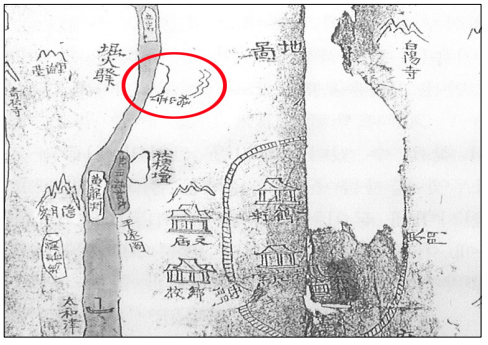

그림 1. 학성지에 수록된 울산지도의 일부분

2.2 여지도 수록 울산부지도

지도의 제작시기 1674~1776년 사이이다. 지도를 보면, 내오산에 오산서원(鰲山書院)이라고 표기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정자(亭子) 중에는 서원과 서당의 기능을 하는 것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는데, 만회정(晩悔亭)도 그와 같은 기능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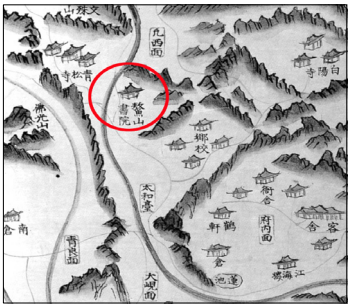

그림 2. 여지도에 수록된 울산부지도의 일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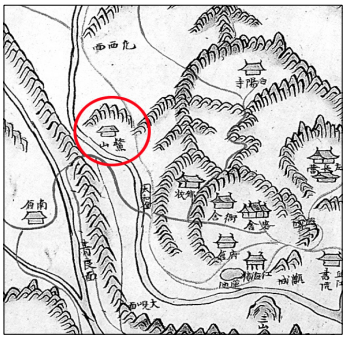

그림 3. 해동지도에 수록된 울산부지도의 일부분

2.3 해동지도 수록 울산부지도

지도의 제작시기가 영조(재위기간 1724~1776년)조이며, 만회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내오산(內鰲山)은 오산(鰲山)으로 명기되어 있고, 그곳에는 건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만회정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건물의 묘사법이 공해(公廨)와는 달리 약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사가(私家)의 것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고, 사가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지도에 표현된 것은 그만큼 공공성(公共性)을 띄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4 경상도읍지 수록 울산지도

지도의 제작시기는 순조 32년(1832) 무렵인데, 만회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오산(鰲山)으로만 표기 되어 있을 뿐 만회정(晩悔亭)의 유존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다. 이것은 곧 1832년에 이미 만회정이 소실(消失)되어 전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만회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산

(鰲山)의 상징성과 경승(景勝)으로서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공적(公的)인 지도에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림 4. 경상도읍지에 수록된 울산지도의 일부분

3. 만회정 연혁 종합

이외에도 여러 고지도를 고찰해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다만, [표 1]에 채색된 부분은 『오산문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1832~1871년 사이의 상황으로 명확히 검증하기가 어렵고, 고지도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사료가 발굴・확보되면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자의 명칭은 초창기에 만회정(晩悔亭)과 오산정(鰲山亭)이 같이 사용되다가 만회정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정자가 한 때 강학(講學) 및 서당의 기능을 하면서 오산서원(鰲山書院)으로 불린 적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다시 만회정으로 불렸고, 소실된 후에는 장소성을 나타내는 내오산 또는 오산대(鰲山臺)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Ⅳ. 만회정의 복원적 고찰

1. 고문헌을 통한 만회정의 건축관련 사료 고찰

『학성지(鶴城誌)』의 형승(形勝)조를 볼 때, 만회정은 내오산(內鰲山), 즉 지금의 십리대숲 가운데에 솟은 오산(鰲山)에 위치하여 있었고, 태화강에 매우 근접한 강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자의 앞에 가늘고 긴 대숲이 몇 무(畝) 있었다고 한 것은 밭이랑 몇에 해당하는 정도의 작은 대숲이 자랄 만한 땅이 있고, 강으로부터 몇 척(尺) 물러난 곳에 위치하였던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만회정이 위치한 곳에 대하여 유묘(幽妙), 즉 '그윽하고 묘하다'라고 하였는데, '유(幽)'는 '숨다', '숨어서 피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것을 지형에 대입해 보면, 주위가 둘러싸인 구체적인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성지(鶴城誌, 1749)』에 만회정과 관련된 시 2편이 수록되어 있다. 1편은 남곡(南谷) 권해(權瑎, 1639~1704)가 만회정(晩悔亭)이라는 제목으로 읊은 것이며, 다른 1편은 권해의 시에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이 운(韻)을 써서 만회정(晩悔亭)에 대하여 읊은 것이다.

권해의 시(詩)에서 만회정이 서 있는 모습에 대하여 '높은(또는 위태로운) 정자가 푸른 물결을 굽어 본다(危亭俯碧波)'고 하였다. 여기서의 '높다', '위태롭다'는 뜻은 정자에 누하주(樓下柱, 마루 아래에 길게 기둥을 내린 것)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그리고 이를 상정하면, 높은 루(樓) 형식의 정자에서 아래의 '푸른 물결을 굽어본다'는 말이 성립된다.

그리고 '난간 굽이마다 안개 속에 덩굴이 엉켜 있네'라는 표현을 볼 때, 권해(權瑎)가 이 시(詩)를 지을 당시인 1694~1697년 사이의 만회정 일곽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듯 넝쿨과 쑥 등이 무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만회정 연혁 종합

정자명 (亭子名)	만회정(晩悔亭), 오산정(鰲山亭)	만회정, 오산정	오산서원 (鰲山書院)	만회정 (晩悔亭)	↔	[내오산 (內鰲山)]	박계환 선대의 정자	↔	[내오산 (內鰲山)]	[오산대 (鰲山臺)]
시기 (時期)	1682~1690	1749	1749 ~1776	1786	↔	1832	1850년 전후	↔	1871	1800년대 후반
존재유무 (存在有無)	初創	有	有	有	消失	無	有 가능성	消失	無	無
참고자료	학수당삼세실기 (鶴睡堂三世實記)	학성지 (鶴城誌)	여지도 (輿地圖)	울산부여지도 신편읍지 (蔚山府輿地圖 新編邑誌)	↔	울산부읍지 (蔚山府邑誌)	오산문집 (五汕文集)	↔	울산부읍지 (蔚山府邑誌)	광여도 (廣輿圖)

또한 '난간(闌干)'이라는 건축 요소도 시에 언급되어 있다. 루(樓) 형식이 정자가 아니더라도 난간을 둘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높은 정자(危亭)'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난간은 누마루에 두른 난간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권상일의 시의 내용 중 '정자 언덕의 푸른 숲에는 덩굴풀이 자라났네(亭畔靑林長薜蘿)'는 정자의 주변에 둑 모양의 언덕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만회정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던 구릉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까이에 말릉촌(秣陵村)이 있다고 하였는데, 말릉촌은 박취문의 본가가 있었던 곳으로 만회정은 그와 대비되는 개념인 별서(別墅, 별장)였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문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만회정의 개략적인 모습은 강변의 기슭에 위치하여 정자 위에서 아래의 강을 내려다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전면에 난간을 두른 누마루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만회정은 본가와 별도로 만든 정자형 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유사한 시기의 울산 태화강변 별장형 누정을 고찰해 보면, 보다 구체적인 만회정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울산 태화강변의 별장형 누정 고찰[2)]

2.1 관서정(觀逝亭)

태화강 상류 범서읍 곡연리 토골마을 개울가에 위치한 관서정은 만회정과 조영시가 유사한 1700년대 초에 건립된 별장형 누정이다.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이며, 중앙의 2칸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1칸씩 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이다. 그리고 정면 4칸 규모에 마루가 2칸이라는 것은 강학(講學) 기능도 겸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만회정이 오산서원으로 이용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만회정의 형식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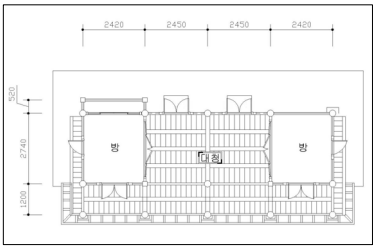

그림 5. 관서정 평면도

2.2 집청정(集淸亭)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8-1번지에 위치한 집청정은 운암(雲岩) 최신기(崔信基)가 1713년에 별서 용도로 조성한 것으로 정자 앞으로는 대곡천이 흐르고 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5칸이며, 평면형식은 중앙의 1칸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 1칸씩을 둔 중당협실형이다. 그리고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난간을 둘렀으며, 그 아래에 누하주를 길게 내렸는데, 앞선 관서정과 같은 형식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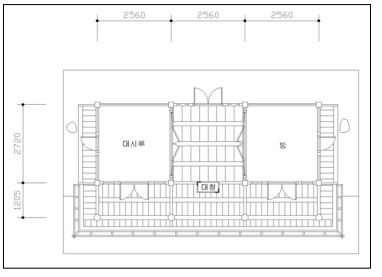

그림 6. 집청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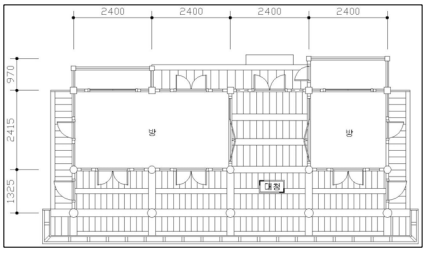

그림 7. 백련정 평면도

2.3 백련정(白蓮亭)

1784년 도와(陶窩) 최남복(崔南復)이 태화강 상류 천전리 방리마을의 대곡천 가장자리에 백련서사(白蓮書

2) 이재현・이창업, "울산지역 누정의 공간구성과 형태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485-490, 2011.의 내용 일부 참조

社)라는 건물군을 지었는데, 그 중 개울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것이 백련정이다. 정면 4칸, 측면 1.5칸(부가된 전면 툇마루를 포함하면 측면 2칸)으로 가운데 1칸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방 2칸, 우측에 방 1칸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으로 이 역시 전면에 누마루형 툇마루를 두고 누하주를 내린 형식이다.

그림 8. 백련정 근경(1997년)

2.4 재천정(在川亭)

재천정은 비록 태화강변은 아니지만, 만회정과 유사한 입지적 조건인 회야강변의 경사지에 위치해있고, 조영시기가 만회정과 비슷한 1800년대 초반이라는 조선후기 상황이어서 고찰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정자는 죽오(竹塢) 이근오(李覲吾)가 1820년 경 낙향하여 지은 별장으로 정면 3칸, 측면 1.5칸이며, 중앙 대청을 기준으로 좌·우측이 명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식이다. 그리고 전면에 누하주를 받친 툇마루를 두고 난간을 둘렀는데, 그 모습은 앞서 언급한 3개의 정자와 거의 유사한 형식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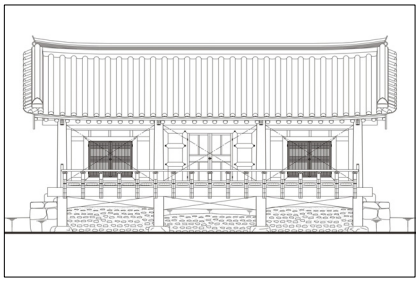

그림 9. 재천정 정면도

V. 결 론

지금까지 만회정과 관련된 고문헌·고지도·태화강변 별장형 누정을 고찰해본 결과 만회정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만회정의 입지적 성격은 십리대숲과 태화강이 마주하는 구릉부의 경사지 상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평면형식은 가운데에 방을 두고 그 양쪽에 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形)으로 전면에 툇마루를 두었고, 진입은 가운데 마루의 뒤에서 이루어졌을 추정된다.
3) 규모는 정면 3~4칸, 측면 1.5칸이며, 전면에 툇마루를 둔 형식으로, 전면 툇마루 아래에는 누하주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경관 구조는 강변(계곡 포함)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그 전면 아래의 경관을 내려다보는 하향적(下向的)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를 위해 전면 툇마루 주변에 난간을 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정면 3칸 기준으로 복원도를 작성해 보면 다음의 [그림 10-그림 12]와 같다.

이와 같이 추정된 만회정의 형식은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태화강변 유사 수계(水系)에 위치한 유사 조영시기의 누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만회정의 복원적 모델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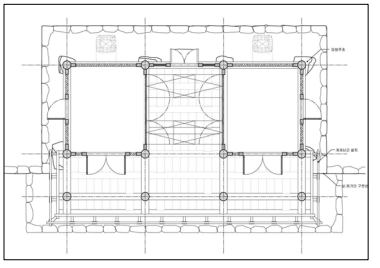

그림 10. 만회정 추정 평면도

하지만, 정면의 칸수가 3~4칸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만회정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발굴하여 그 규모를 찾는다면, 보다 명확한 복원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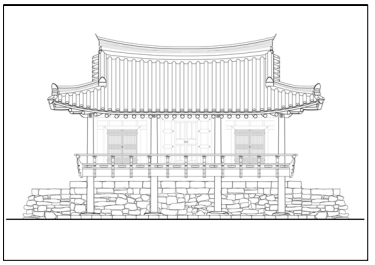

그림 11. 만회정 추정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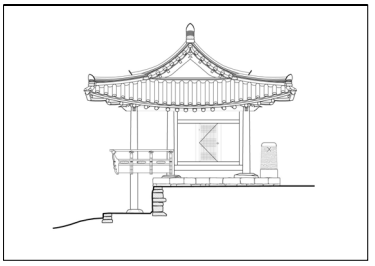

그림 12. 만회정 추정 측면도

이와 더불어, 만회정의 복원은 울산의 무인 정신을 기념하는 중심시설, 십리대숲의 대표적 경관 관람처, 전통경관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콘텐츠 활용과 연계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鶴城誌*(1749년 편찬), *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1786년 편찬), *蔚山府邑誌*(1832년 간행)

[2] 울산문화원, *울산울주향토사*, 울산문화원, 1977.

[3] 울산문화원, *내고장의 전통*, 울산시, 1982.

[4] 이유수,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1986.

[5] 송수환, *태화강에 배 띄우고- 울산경승 한시 선집*, 울산광역시, 1999.

[6] 성범중, *한문학 속에 남아 있는 울산지역의 풍광과 풍류*, UUP, 2005.

[7] 이재현, 이창업, "울산지역 누정의 공간구성과 형태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2011.

저 자 소 개

이 창 업(Chang-Eob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 2005년 2월 : 울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대학교 공간디자인학부 겸임교수

<관심분야> : 건축, 실내건축, 문화콘텐츠개발